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25

隨其心淨 即佛土淨 法寶記壇經云 수기심정 즉불토정 법보기단경은心地但無不淨 西方去此不遠 심지단부부정 서방가차불원...

以此而推 雖不念佛求生 但了唯心 이차이추 수불염불구생 단료유심 隨順觀察 自然生彼 必定無疑...

가까이서 뵈 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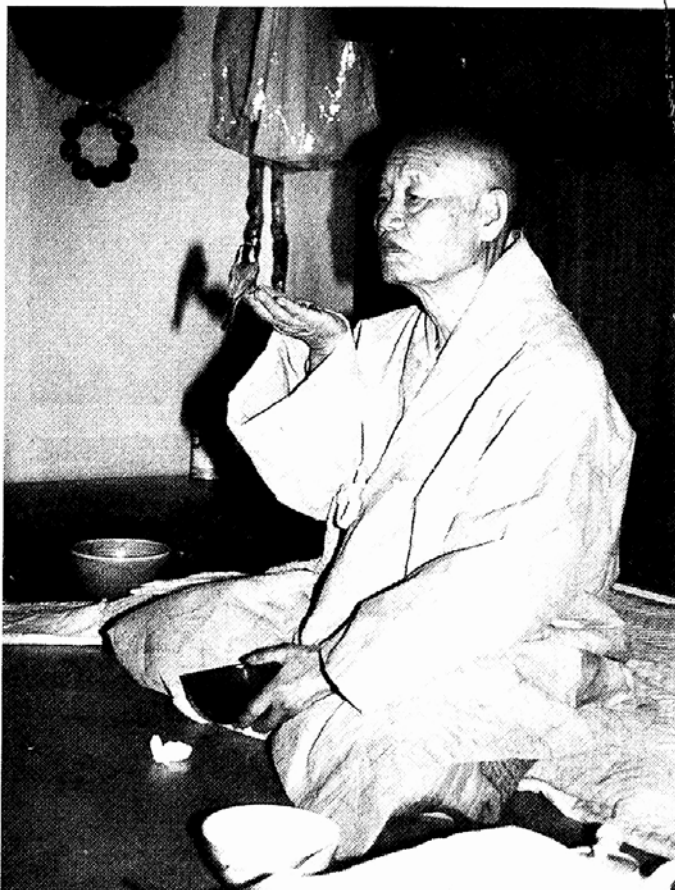
종 안 스님

태안사 가은암 주석

“오욕락의 세상살이가 지옥”

보성강의 한 물줄기로 흐르다가 섬진강으로 뿔러드는 곡성 죽곡면 동리산 자락. 태안사는 섬진강과 백운산에서 한발짝 물러난 아늑한 산자락에 숨어있었다. 이리저리 휘어져 산허리를 감고 도는 오솔길을 따라 40여분. 강너머 지리산의 그늘에 가린 탓에 여태 때가 묻지 않은듯 청정한 도량이 나타난다.

뒀진 아담한 토굴이었다. 스님께서 방문을 열자 창가에서 지저귀던 곤졸박이가 방안을 휘돈다. 스님이 손짓하자, 손 위에 와 사뿐히 앉는다. 스님은 간식거리인 잣을 곤졸박이에게 나눠 준다. 새들은 아침 저녁, 끼니 때에 맞춰 날아든다고 한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수시로 날아와 잣을 물고 간다. 노스님의 마음이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니, 곤졸박이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된지 오래다.



◇ '무심이 되면 미물과도 한 마음.' 산새들은 배가 고프면 배가은암방사로 날아들어 종안스님이 주는 잣을 얻어먹는다.

자기 마음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겠는가

혹일초지 사신속생묘희세계 或生極樂淨佛土中 此其證也 혹생극락정토중 차기증야

以謂名利之學 亦謂非分境界 이위명리지학 역위비분경계 終不掛懷 一時棄去 既棄修心之秘訣...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해진 다' 하였고, 《법보기단경》에는 마음이 깨끗하면 서방정토는 여기서 멀지 않지만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아주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전부터 배우고 익혀 마음을 밝혀놓은 부처와 조사들의 비결을, 오히려 명리(名利)를 얻으려는 학문이다 하거나 또는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은 공부라 하면서 마침내 생각에 두지 않고 일시에 버리고 만다.

수선사는 마음을 알면 바로 유심정토(唯心淨土)에 나고, 경계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그 경계에 떨어진다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처와 조사들이 말한 바 정토에 나기를 구하는 취지는 모두가 자기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겠는가? 《여래불사의경》에 '삼세의 모든 부처가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에 의지해 있다. 만약 보살이 부처나 일체의 법이 다 마음에 있다 하면 깨달아서 그 마음에 안주하며 움직임을 경계 즉 수순인(隨順忍)을 얻으면, 초지(初地)에 들어가 몸을 버리고 묘희(妙喜)의 세계에 나기도 하고 혹은 극락의 깨끗한 부처 나라에 나기도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종안 큰스님이시네요? "그런데요." "스님 뵈게되어 반갑습니다. 큰 스님 전 권하러 온 기자입니다." "크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줄 알았으면 가은암은 개울 건너 숲속 언덕에 살포시 앉아 있었다. 종안 스님은 마침 촉대 쌓는 울력을 돕기 위해 개울가로 내려오던 참이었다. 일꾼에게 몇가지 작업지시를 내린 스님은 기자를 암자의 큰방으로 안내한다. 가은암은 선방과 큰방, 작은방, 마루로 이

김원각<시인·역경위원>

노스님의 살림살이 누비웃 한벌과 삿갓 염주와 석장뽀 일과는 참선과 울력

노스님 구산선문 중 하나인 태안사. 도선 국사의 스승인 혜철스님이 1,200여년 전에 이 도량에 동리산파를 개창했다. 결제 때마다 방부들 들어서는 수좌들이 많아 힘에 부칠 정도라는 선원은 아직까지 흠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선원이 들어선 오른쪽 계곡 안에는 앞산 바래봉아래 구룡마을에서 태어난 신승경 장군을 추모하는 전각이 있다. 그는 왕건을 도와 개국에 공을 세우고, 후에 팔공산에서 후백제와 대접전을 벌일 때 궁지에 몰리자, 왕건 대신 자신이 왕의 의복을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 불교를 숭상한 고려 왕조가 그의 제사를 올리는 태안사를 크게 중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 만하다.

"은 세상이 눈으로 덮혔던 그때, 곰이 토굴안에 들어와 마루 앞에 쪼그리고 있는데 무심코 웃기가 스치고 눈이 마주쳤다. 혼자 토굴 수행을 하던 당시에는 이미 공포심도, 세상에 대한 집착도 떨어져 나가서 인지 곰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지. 굶주린 모습이 가여워, 얼마 남지 않은 내 먹거리를 주었지." 스님은 사람이 무심이 되면 벌과 곰도 무심하게 되고, 사람이 겁내고 몸을 사리면 집승도 경계하게 된다고 말한다. 상에 걸린 중생심을 버릴 때, 미물이나 축생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 하신다. 불혹(不惑)의 나이 마흔에 출가해 세속 나이로 올해 일흔여덟이 된 종안 스님. 누비웃 한벌과 삿갓, 염주, 산길을 다니는 동안 벌레들이 밟혀 죽지 않도록 길을 트는 석장. 38년간 참선만 해 온 스님의 살림살이 전부가. 전화도, 라디오·TV도 없다. 틀리는 건 산새들의 노래소리 뿐. 몇년전까지 일종식을 해오다, 연세가 많아진 요즘엔 오후불식을 하고 있는 종안스님은 참선하는 시간(종안거 때는 17시간)과 잠을 자는 네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울력을 한다. 나무 하고 장작 패기, 촉대 쌓기, 도량 청소는 기본. 매번 수행처를 옮길 때마다 토굴을 직접 짓는 것도 스님의 일이다. 여든 가까운 세수에도 스님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공양을 하지 않는다. 스님은 '백장창규'를 철저히 지켜왔다. 흐트러짐 없는 용맹정진의 원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40세까지 세상살이에 찌들 대로 찌들었던 스님은 마흔 나이에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룡산 감사를 찾았다. 당시 감사 주

지 혜원스님과의 문답은 이렇다. "뭘하러 왔소?" (혜원스님) "마음 밝히려 왔습니다." (종안스님) "맑은 물에는 고기 없습니다." (혜원스님) "....." (종안 스님) "이 불법은 오욕락의 세상살이를 완전히 끊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혜원스님) "오욕락을 끊고 산다면 중생계를 벗어 나겠군요?" (종안스님) "불법은 인과 그대로입니다." (혜원스님) 종안 스님은 혜원 스님의 마지막 '인과'라는 말에 그동안 지내온 의문이 일거에 해소됨을 느꼈다고 한다. 초발심이 컸기에, 스님은 철저히 하심

일시 4월 3일 (화) 오후2시 4월 12일 (목) 까지 마음으로 보는 설봉스님 도예전 장소 부산 국제신문 제1전시실 (4층) ☎ (051)500-5385

백자앞에서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랴!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웠으랴! 어둠의 가마 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너의 싱싱한 숨소리가 가마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마음으로 보는 설봉스님 도예 설봉 스님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자기 명인 스님의 작품 그리 物質의 작품이 아니다. 도가 가득한 작품이다. 수없이 다듬고 다듬은 정성이 담백한 작품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하는 세계이다. 파도 같은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게 하는 위력이다. 신타래와 같이 엉클어진 마음도 풀어지게 하는 명작이다. 보는 사람도 스스로가 자기의 內面性을 回光되게 하는 作이다. 못사람들의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作이다. 인간의 限界를 뛰어넘는 神秘的 作이다.

무애원은 해병대 법당이다. 군인 중의 군인 용감한 해병대들 가슴에 높고높은 佛心을 꼭꼭 심어주는 佛事に 스님의 全生을 다 쏟아붓는 것이 스님의 願이고 스님의 뜻이 가득 담긴 밝은 얼굴이다. 군포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끼던 작품을 모두 출품한 이번 부산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나 스님의 군포교에 큰힘이 되길 바란다. 佛國 正觀 心